

강진원 49.3% 오차범위 밖 선두 차영수 26.0%…김보미 11.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전남 강진군수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강진원 현 군수가 5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군수 선거는 최근 민주당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강진원 군수의 무소속 출마 등 거취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강진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강진원 현 군수는 49.3%를 기록,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차영수 현 전남도 의원은 26.0%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11.4%,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9.8%, 기타 후보 1.3%로 조사됐다. ‘없음·모름’ 비율은 2.3%였다.

후보들 중 강 군수는 연령·지역·정당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차 도의원은 일부 연령대와 지역에서 선전하며,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강 군수가 1위를 달렸으며, 70대+(55.3%)와 60대(53.6%) 이상에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40대에서 49.0%, 50대에서는 49.6% 선택을 받았다.

차 도의원은 18/20대에서 28.4%를, 30대에서 37.8%로 선택을 받는 등 청년층에서 비교적 선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보미 전 군의회 의장은 18/20대에서 39.3%를, 30대에서 20%의 선택을 받은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한자릿수를 얻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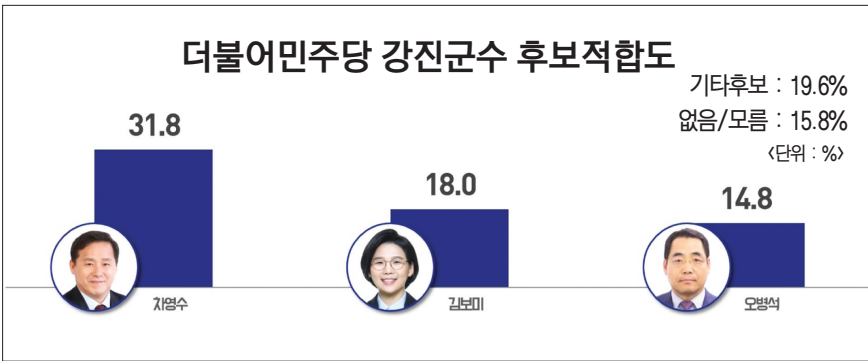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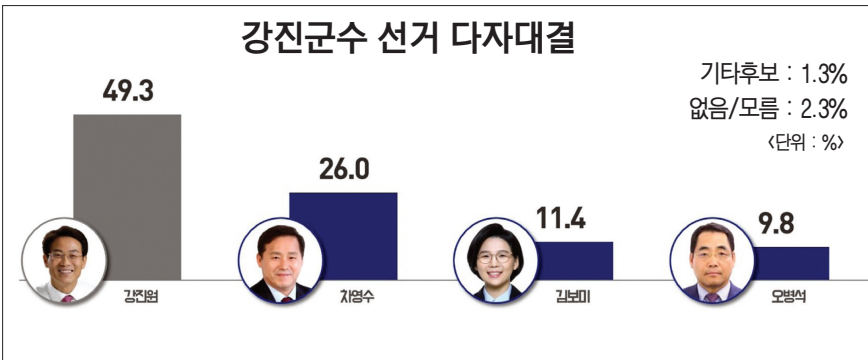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강 군수가 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강진읍과 도암·신전·성전면으로 구성된 ‘가 선거구’에서 49.9%를, 군동·칠량·대구·마량·좌천·병영·음천면 등으로 구성된 ‘나 선거구’에서도 48.3%의 지지를 받았다.

차 도의원은 ‘나 선거구’에서 24.8%, ‘가 선거구’에서 20.6%의 선택을 받았다. 김 전 의장은 ‘가 선거구’에서 29.6%, ‘나 선거구’에서 18.3%의 지지를 받아, 2위인 차 의원을 추격하는 모습이다.

정파별로는 강 군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46.5%가 지지하는 등 모든 정파에서 50% 인파의 지지율로 경쟁 후보군을 앞섰다. 차 도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30.3%의 지지를 받았으며, 김 전 군의회의장은 11.6%의 선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당원권 정치’ 현 군수 거취 선택이 ‘최대 변수’

민후후보는 차영수·김보미…지지층 표심 관건

차영수 도의원이 31.8%를 받아 김보미 전 군의회 의장(18.0%)을 13.8%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민주당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14.8% 지지를 받았다. 기타후보 19.6%, ‘없음/모름’ 비율은 15.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영수(36.8%), 김보미(18.4%), 오병석(13.4%) 순으로 조사됐으며, 차 도의원이 김 전 군의회 의장을 18.4%p 앞서며 격차를 더 벌렸다. 연령·지역별에서도 차 도의원은 30대(37.8%)와 40대(33.3%), 50대(35.9%), 60대(32.5%), 70대+(29.0%) 등과 가선거구(33.3%), 나선거구(29.6%) 등서 30% 인파의 비교적 고른 지지를 얻었다.

김 전 군의회 의장은 18/20대(40.9%)에서 40%대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나선거구에서 22.7%를 기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진지역은 민주당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강 군수의 거취 선택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징계를 받은 오병석 차관보의 선택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강 군수의 재심 청구 내용을 일부 받아 들여 당원 자격 정치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원 모집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당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강 군수는 재심에도 불구하

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당내 공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단,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런바 ‘건너뛰기 4선’에 도전하는 강 군수는 인물론과 함께 그동안 구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

오 전 차관보 역시 6개월의 당원권 정치가 확정돼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탓에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 경선은 차 도의원과 김 전 군의회 의장 등 두 후보만의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두 입지자간 경선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 도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지역 현안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군회의 의장은 여성청년가정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남일보·KBC 광주방송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강진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5년 12월말 현재 국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고(셀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은 15.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강진=이진록 기자 sa4332252@

김신 22.8% 1위…신의준 추격 2.3%p차 혼전…상위권도 촌촌

김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6·3 지방선거 완도군수 선거 다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초반 판세 주도권을 잡았다. 다만 상위권 인사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 구도는 여전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 완도군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완도군수 다자대결에서 김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8%의 지지율로 선두에 올랐다.

신의준 전남도의회이 20.5%로 오차범위(±4.4%p) 내에서 김 부의장을 추격했고, 지영배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 16.4%, 이철 현 전남도의회 부의장 15.3%,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 1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세국 전 전남도청 감사관과 허궁희 현 완도군의원, 김재현 현 김대중재단 완도군지회장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상위 5명의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며, 특정 인사가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도라는 점이 특징

으로 꼽힌다. 선두를 기록한 김신 부의장과 2위 신의준 도의원 간 격차는 2.3%p에 불과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충분히 순위 변동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중의원에 형성된 지영배 전 서기관, 이철 부의장, 우홍섭 전 부군수 역시 1~2%p 내외 차이를 보이며 촌촌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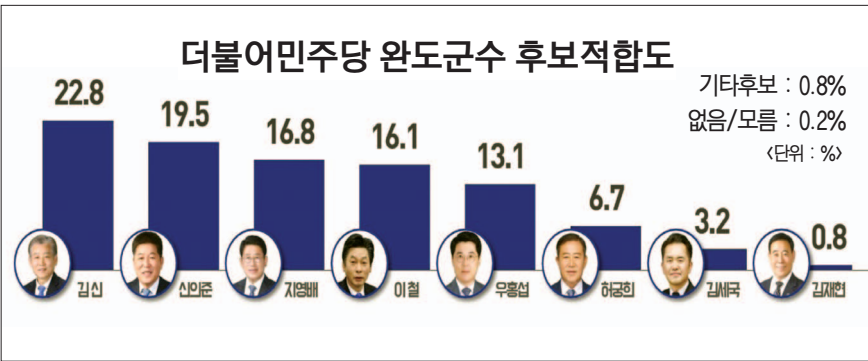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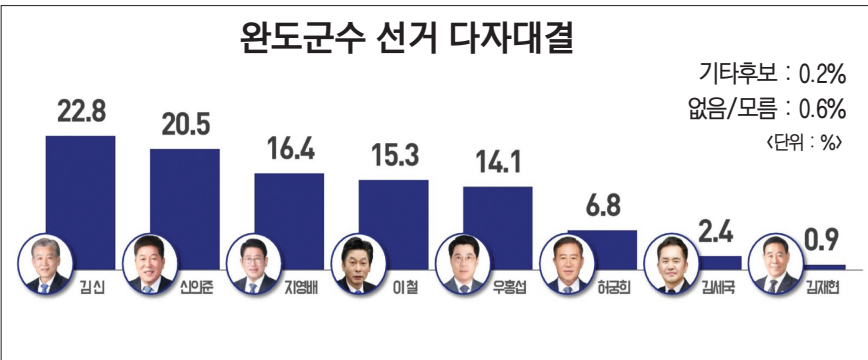
이 같은 수치는 완도군수 선거가 초반부터 ‘혼전’ 양상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인사와 지방의회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아온 인사, 중앙부처와 지역 행정을 두루 거친 인사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판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세대 간 지지 흐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60대에서는 김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30%를 웃도는 지지를 얻으며 비교적 강세를 보였다. 정책 경험과 당내 활동 이력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에서 안정적인 평가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김신 부의장과 신의준 전남도의회이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접전을 벌였다. 지역 정치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신 도의원에 대한 신뢰 역시 고령층 일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청·장년층에서는 다자 구도의 특성이



지영배 16.4%·이철 15.3%·우홍섭 14.1% 등 중위권 접전

지역별·세대별로 선택 갈려…선거 막판 각종 변수 가능성

더욱 뚜렷했다. 30대와 40대에서는 특정 인사로의 출현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지영배 전 행정자치부 서기관과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의 지지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완도군수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행정 운영 능력과 향후 군정 방향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판세는 조금씩 달랐다.

가선거구(완도읍·노화읍·소안·보길면)와 다선거구(군외·신지·약산·청산면)에서는 김신 부의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보이며 중심지 기반을 다졌다. 나선거구(금일읍·고금·금당·생일면)에서는 신의준 도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는 완도군 전역에서 특정 인사가 일괄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서로 다른 선호 구도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각 인사의 지역 밀착 행보와 조직력, 현장 활동 여부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인사 적합도 조사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였다. 지역 정치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신 도의원에 대한 신뢰 역시 고령층 일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다.

민중당 인사군 조사에서 김 부의장은 22.8%의 지지를 기록했고, 신의준 전남

도의원(19.5%)과 지영배 전 서기관(16.8%),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16.1%), 우홍섭 전 진도군 부군수(13.2%), 허궁희 완도군의원(6.7%), 김세국 전 전남도청 감사관(3.2%), 김재현 현 김대중재단 완도군지회장(0.8%)이 그 뒤를 이었다.

완도군은 부동층이 전체 1.0%(기타 : 0.8%, 무응답 : 0.2%), 민주당 지지층 0.5%(기타 : 0.3%, 무응답 : 0.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도 상위 인사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경선 국면 역시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처럼 완도군수 선거는 다자대결과 당내 인사 경쟁 모두에서 뚜렷한 ‘1강’ 없이 혼전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경험형 인사와 지방의회 활동 중심 인사, 지역 사회 기반 인사들이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선거 막판까지 표심 이동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가상변호를 활용한 100%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광남일보와 KBC 광주방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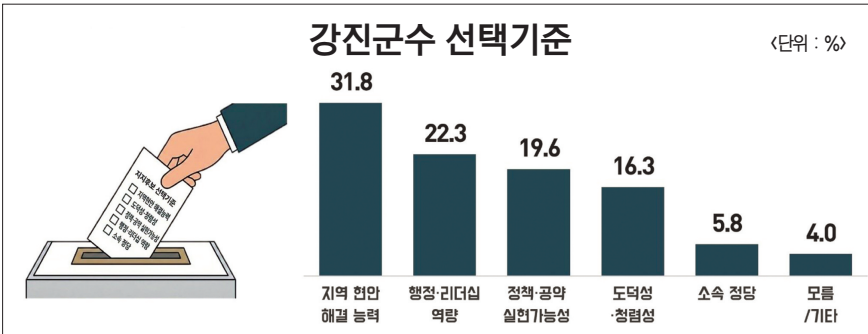
강진군민 ‘지역현안 해결 능력’ 가장 중요

응답자 31.8%…연령별 차이
소속정당 5.8% 상대적 낮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진 군민들은 군수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5일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만 18세 이상 강진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이어 행정·리더십 역량(22.3%), 정책·공약 실현가능성(19.6%), 도덕성·청렴성(16.3%), 소속 정당(5.8%) 등 순이었



다. 기타·모름은 4.0%다.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선택한 응답은 남성(32.6%)이 여성(31.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18/20대(49.5%), 30대(43.2%) 등 청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50대 37.1%, 40대 29.4%, 70대+ 27.1. 60대 25.2%를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1.9%), 조국혁신당(38.6%), 무당층(43.4%)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후보자별로는 김보미 전 군의원 지지층에서 38.6%로 가장 높았고, 차영수 지지층(31.4%), 강진원 지지층(32.0%), 기타인물 지지층 34.8%, 없음·모름 42.5%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리더십 역량’은 40대(29.4%)와 60대(27.7%)에서 비교적 많았고, 진보당 지지층(47.6%)과 개혁신당 지지층(30.1%), 무당층(32.2%)에서 높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강진=이진록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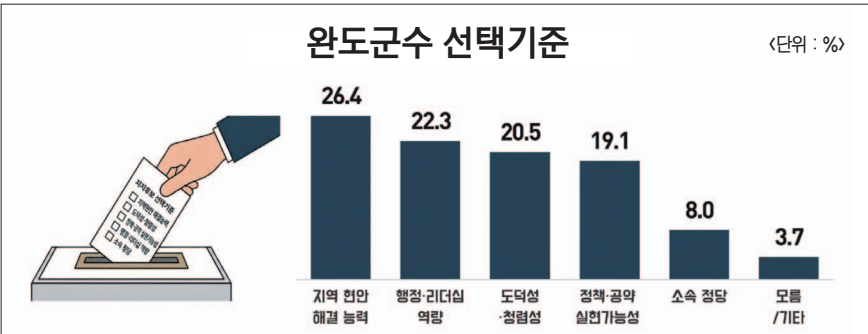
완도군민 ‘지역 현안 해결 능력’ 1순위 꼽아

26.4%선택…리더십도 중요
도덕·청렴성, 공약 실현 등 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도군 유권자들이 차기 군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남 완도군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완도군수 선택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가 ‘지역현안 해결 능력’을 꼽았다.

뒤를 이어 ‘행정·리더십 역량’이 22.3%로 두 번째로 높았고, ‘도덕성·청렴성’은 20.5%로 나타났다. ‘정책·공약의 실현 가능성’ 역시 19.1%로 적지 않은



응답을 기록해, 완도군 유권자들이 선연적 공약보다는 실제 이행 가능성과 행정 운영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반면 ‘소속 정당’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응답은 8.0%에 그쳤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진영보다는 지역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가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모름·기타’

응답은 3.7%로 비교적 낮아, 다수 유권자들이 이미 군수 선택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조사 결과는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